

“흠 개막전 반드시 승리한다”



제주 유니티드와의 2016 K리그 클래식 흠개막전(19일)을 앞두고 있는 광주 FC 선수단이 16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몸을 풀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FC, 19일 제주전 앞두고 월드컵경기장서 훈련



GWANGJU FOOTBALL CLUB

광주 FC 선수단이 흠개막전을 앞두고 결전의 무대를 밟았다. 광주 FC가 16일 오전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훈련을 실시했다. 목포국제축구센터 클럽하우스로 삼아 지내고 있는 광주 선수단은 이날 일찍 준비를 하고 광주로 향했다. 오는 19일 열리는 제주 유니티드와의 흠개막전에 앞서 미리 그라운드 상태를 점검하고, 적응을 하기 위한 것이다. 선수단은 안방에서 전술훈련과 미니 게임 등을 소화하면서 흠개막전 승리를 다짐했다. 12일 포항 스틸러스와의 경기를 통해 2016시즌 첫 발을 내딛기는 했지만 흠팬들 앞에서 맞는 시즌 첫 경기인 만큼 승리를 향한 선수단의 각오는 남다르다. 앞서 광주는 포항과의 승부에서 2-0의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후반 막판 내리 세 골을 내주며 첫 승신고를 미뤄야 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플레이를 하면서 값진 승점 1점을 안고 두 번째 경기를 준비하고 있다. 남기일 감독은 “안방에서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려고 하니 감회가 새롭다. 새로운 선수들과 시즌을 보내고 흠팬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포항전은 아쉬움보다 좋은 경험으로 삼겠다는 생각이다. 남 감독은 “잘 될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으로 포항전을 치렀고, 조직력을 맞추는 시간이라서 조심스럽게 접근했는데 선수들이 잘 해줬다. 마무리 부분이 아쉬웠지만 팀이 조금 더 좋아진 것 같고 목격해준 것 같다”며 “제주와의 흠경기를 앞두고 (퇴장과 부상으로) 전력 공백이 있기는 하지만 좋은 신인들이 들어왔고 훈련을 많이 하면서 준비가 잘 이뤄졌다. 흠팬들에게 승리를 선물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언급했다. 올해로 프로 15년차, 광주에서 세 번째 시즌을 맞는 ‘캡틴’ 이종민도 걱정 반 기대 반으로 19일을 기다리고 있다. 제주전에서는 모든 걸 쏟아붓고 승리를 신고하겠다는 각오다. 이종민은 “흠개막전을 치르고 나면 경기를 쉬게 된다. 제주전에 모든 걸 쏟아부어서 이기겠다”며 “선수들끼리 많은 생각을 하면서 포항전을 철저히 준비했었는데 퇴장이라는 경우를 생각하지 못했다. 경기가 끝나고 선수들끼리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좋은 경험이 됐고, 다행히 무승부도 거둘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올해로 15년차인데 다치지 않고 팬들에게 내 모습을 보여드리게 개개인적인 목표다. 또 광주가 클래식에서 경쟁력 있는 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많은 관중 앞에서 광주의 힘을 보여드리고 싶다. 많이 경기장을 찾아주시면 좋겠다”고 흠개막전을 앞둔 소감을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멀티골’ 광주 FC 정조국, K리그 클래식 개막전 MVP

‘무등산 패트리엇’ 정조국(광주 FC)이 K리그 클래식 개막전을 빛낸 최고의 선수가 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6일 2016 K리그 클래식 1라운드 6경기를 평가, 광주의 공격수 정조국을 주간 MVP로 선정했다. 정조국은 평가위원회로부터 “멀티골로 공격을 주도했다. 득점뿐만 아니라 광주 공격의 선봉장으로서 상대를 공략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정조국은 지난 12일 포항 스틸러스에서 열린 포항 스틸러스와의 시즌 개막전에서 전반 16분에 이어 후반 20분 연속골을 넣으며 3-3 무승부의 주역이 됐다. 정조국은 이날 5개의 슈팅을 모두 유효슈팅으로 연결시키는 집중력을 보여줬다. 또 광주의 유효 슈팅 6개 중 5개를 책임지면서 두 골을 기록, 1라운드에서 유일하게 멀티골을 기록한 선수가 됐다. 광주 데뷔전에서 MVP의 영예를 안은



포항과의 개막전에서 멀티골을 기록한 광주 공격수 정조국(오른쪽)이 K리그 클래식 1라운드 MVP가 됐다. <광주 FC 제공>

정조국은 “전지훈련 동안 팀이 하나 되는 훈련을 집중해서 했고, 동료 선수들이 많은 도움을 줬다”며 “비록 무승부에 그쳤지만 앞으로 더욱 많은 것을 보여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 출신의 이승기(상주 상무)도

“중원에서 정확한 패스와 돌파가 인상적이었다. 멋진 원발 프리킥으로 승리를 주도했다”는 평가 속에 벤투스 11 미드필더 부분에 이름을 올렸다. 상주는 이승기의 활약 속에 울산 현대를 2-0으로 제압했다. /김여울기자 wool@

‘제2의 김국영’ 찾아볼까

광주시체육회장배 육상대회 내달 11일 개막 초 3~중 3학년 일반 학생 대상 60개 종목

육상 꿈나무들의 힘찬 레이스가 시작된다. ‘제 2회 광주시체육회장배 육상경기대회’가 오는 4월 11일 광주월드컵경기장 육상경기장에서 막을 올린다. 이 대회는 광주지역 초·중학생 선수들을 대상으로 60개 세부종목(초등부 24, 중등부 36)으로 나뉘어 치러진다. 광주시체육회가 광주시교육청과 공동으로 주최하며 광주시육상경기연맹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비인기 종목인 육상의 저변 확대와 재능있는 꿈나무를 조기에 발굴,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로 2회째다.

선수 등록을 하지 않은 초등 3~6학년, 중 1~3학년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경기가 펼쳐지는 만큼 학생들 입장에서는 개인 능력 테스트가 가능하고 체육 지도자들로서는 재능 있는 육상 꿈나무를 발굴할 수 있는 대회라는 평가가 나온다. 참가 신청은 광주시교육청 각종 체육대회 홈페이지(http://clubsports.gen.go.kr)에서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 받는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광주의 열악한 맹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비인기 종목을 넓히고 우수한 능력의 선수를 조기에 발굴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봅슬레이 원윤종·서영우 ‘체육대상 MVP’ “코치님 영전에 메달 바칠 것”

맬컴 로이드 우수지도자상 광주여대 최미성 우수선수상



16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21회 코카-콜라 체육대상’에서 우수지도자상을 대리 수상한 국가대표 봅슬레이팀 이용 감독(왼쪽)과 서영우(오른쪽), 원윤종 선수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날 우수지도자상은 암으로 갑작스럽게 타계한 맬컴 로이드 봅슬레이 대표팀 코치가 수상했다. /연합뉴스

봅슬레이 세계랭킹 1위에 오른 원윤종(31)-서영우(25)가 코카콜라 체육대상 최우수선수(MVP)의 영예까지 안았다. 원윤종-서영우는 16일 서울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21회 코카콜라 체육대상 시상식에서 MVP로 선정됐다. 두 선수는 2015-2016시즌 8번의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IBSF) 월드컵에서 금메달 2개, 동메달 3개를 땀다. ‘올림픽 모의고사’로 불리는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7위에 올랐다. 월드컵 8차례와 세계선수권대회의 성적을 통틀어 세계랭킹 1위다. 이들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금메달을 목표로 삼고 있다. 우수선수상은 남자 태권도의 간판 이대훈(25)과 광주여대에 재학중인 ‘여자 양궁 신성’ 최미성(21)에게 돌아갔다.

이대훈은 태권도 올해의 선수 2관왕 및 세계랭킹 1위 등을 차지하며 ‘태권도 중추국’의 자존심을 지켜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미성은 양궁월드컵 파이널 여자 리커

브 개인전과 혼성전 2관왕 및 리우 프레올림픽 개인전, 단체전 2관왕 등을 일궈내며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유력한 금메달 후보로 떠올랐다. 암으로 갑작스럽게 타계

한 맬컴 로이드 봅슬레이 대표팀 코치는 우수지도자상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 2014 소치 올림픽 직후 봅슬레이 대표팀을 맡은 로이드 감독은 원윤종-서영우를 키워내는 등 한국 봅슬레이 수준을 세계 무대로 끌어올린 인물로 평가받는다. 영국 출신인 로이드 코치는 지난 1월 캐나다의 자택에서 향년 68세로 숨을 거뒀다. ‘미래의 아마추어 스포츠 스타’에게 주어지는 신인상은 스키타트 기대주 윤성빈(22)과 ‘피겨 샹젤’ 유영(13)에게 돌아갔다. 윤성빈은 가파른 상승세 속에 세계랭킹 29위까지 기량을 끌어 올렸고 유영은 최연소 국가대표 선발로 주목받았다. 우수단체상은 배드민턴 세계 1위인 이흥대(28)-유영성(30) 조에 돌아갔다. 유도 이정민(27)은 우수장애인선수상을 품어 안았다. 남자 육상 간판 김국영(26·광주시청)은 특별상, 이예리사 새누리당 의원(62)은 공로상을 받았다. /연합뉴스